

배움의 전당, 한국전기학원

취재·정리/홍보과

영등포역에서 하차하여 여의도 방향으로 약 100m 지점에 다다르면 한국전력공사 앞에 자리한 한국전기학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3가 12-6 영등포우체국 사서함 46호 TEL:678-2727~8)이 시야에 들어온다.

한국전기학원은 20년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21세기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새롭게 급변하고 있는 산업 사회의 분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자기성취와 발전을 위하여 끊임 없는 연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전기분야에서 현대사회가 절실히 요구하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전기학문의 가장 기초적인 전기기능사반으로부터 전기기사반, 한전 승진반, 첨단기술인 산업 자동제어에

관한 국내최초의 기술습득과정인 시퀀스반, PLC, 로보트교육과정과 기술사의 최고 자격인 기술사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다.

그동안 한국전기학원에서는 전문기술자 양성과 기능인력을 양성배출하였고, 이곳 출신의 전문교수들과 기능인들, 수험생들의 3박자가 어우러져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학원 수료생들은 물론이고 수험생들 모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선배들이 이룩한 전통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한가지 기술이라도 더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하려는 모습들이 역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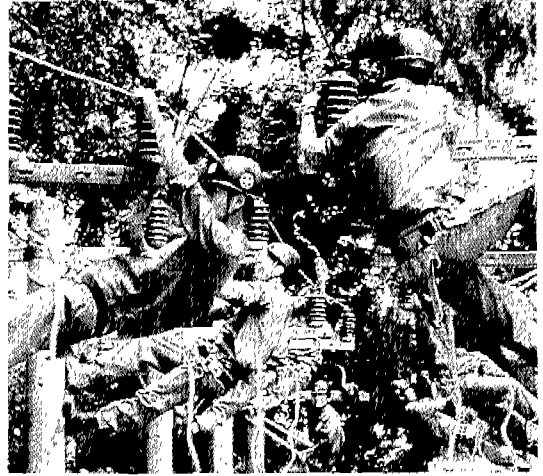
한국전기학원의 교육과정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기초적인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변전설비기능사, 발전설비기능사, 송배전설비기능사 과정은 6개월과정이며, 전문기술자인 전기기사 1, 2급과 전기공사기사 1, 2급의 6개월과정을 비롯해서 최고자격인 기술사는 105개의 자격종목중에서 전기분야 5개직종(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전기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과 한전승진반, 자동제어실무반 과정 등 모두 14개과정을 운영하고 있었고 기능인력양성의 요람답게 시설과 장비규모 또한 대단했다.

특히 기능인력양성 전문기관답게 장학생 선발제도와 앞날을 개척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청소년들에게는 무료수강증도 발급하여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있었다. 한편, 많은 기술사를 배출하기도 하여 전기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온 오철균 원장은 20여년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원생들

**생각하는 교육, 현장교육, 생명력있는
전기기술자의 교육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전기학원은 기초 개념부터 최고급
수준까지 시험에 관한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전수가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뚜렷한 확신과 내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전인교육의 현장이었다.**



▲출발전 실습 모습

가까운 전통에 걸맞게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전기학원은 수도권내에 영등포 본원을 주축으로 해서 잠실학원, 미아리학원, 인천학원, 대전학원, 부산학원, 광주학원, 창원학원 등 9개학원이 있어 보통학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오원장은 앞으로 한국 최고의 전문교육 기관을 만들어서 전문기술자와 기능인력을 양성배출하겠다고 신념과 굳은 의지가 운영방침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오원장이 전기계에서 지금의 명성을 인정받기까지는 그리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과거의 초년시절과 확장시절, 그리고 공무원생활에서 많은 쓰라림과 좌절을 겪었고 그 고통속에서도 현 한국전기학원을 만들어내게 되기까지 참으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만의 끈기와 인내가 있었다고 한다.

오원장은 전문기술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간직하고 소중히 가꾸어 오신 분들에게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전문기술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열정과 판단 그리고 창조력이 깃든 생각하는 교육, 현장교육, 생명력있는 전기기술자의 교육이념을 갖고 있는 한국전기학원은 기초 개념부터 최고급 수

준까지 시험에 관한한 완벽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전수가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뚜렷한 확신과 내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을 심어주는 전인교육의 현장이었다.

산업사회의 방법론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많이도 변했지만 한국전기학원은 그러한 변천과정에 대한 해석과 전기기술 산업에 연결된 실천적 교육의 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20년동안 축적된 교육경험과 첨단산업기술에 대한 해석력과 논리적 판단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전문기술자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고 있다.

학생들과 직장인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더 나아가 국가관의 확립과 올바른 생활지도의 방침 등으로 온정성을 쏟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오원장의 말을 듣는 순간 이곳 출신들이 왜 산업현장에서 크게 환영받고 있는지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한국전기학원은 또 산업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예기능인력, 즉 전문기술기능인력의 양성목표로 「誠·忍·知·信」을 교훈으로 하고 있었고 나날이 발전하는 조국의 산업에 이바지 하겠다는 슬기와 용기로 가득차 있었다.